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본문: 창세기 39:19-2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QTZRW2-PSIc?si=UPwxdWUO9ajQatz> (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결과가 참혹한 고난과 억울함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코람데오)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으나, 돌아온 대가는 끔찍한 누명과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이자,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망의 늪에 빠진 요셉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인 감옥까지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헤세드)의 손길을 길게 늘어뜨려 요셉에게 부여주셨습니다. 일반 감옥이 아닌 당대 최고 정치범들이 모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그를 이끄셔서 훗날 애굽을 통치할 정치를 배우게 하였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 차가운 감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억울함, 사방이 막힌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가장 어두운 무덤에 갇히셨으나, 영광스러운 부활로 역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숨 막히는 현실을 내 힘으로만 바꾸려 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절망적인 감옥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역전되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관찰]

1. 주인의 분노로 인해 요셉이 갇히게 된 옥은 일반 감옥과 다른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 39:20)
2.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맡긴 제반 사무를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 39:23)

[삶의 적용]

1.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다 억울함을 겪었거나, 현재 사방이 팍 막힌 감옥처럼 느껴지는 나의 삶의 영역(직장, 가정, 재정, 관계 등)은 무엇입니까?
2.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도망치거나 원망하는 대신, 오늘 내가 선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구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사방이 막힌 억울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내가 선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역전되는 참된 형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